

이덕일의 '역사의 창'



강증산의 백 년 전 팬데믹 예언

한국에서 영성(靈性)이 강한 지역을 꼽으라면 대략 세 곳을 들 수 있다. 충청도 계룡산과 경상도 경주 남산 그리고 전라도 모악산이다. 한 세기 전 나라가 망국 위기에 빠지자 여러 민족종교들이 출현했다. 동학을 창시한 수운 최재우는 경주 출신이다. 증산 계통의 종교들을 창시한 강증산은 전라도 고부 출신으로 모악산 아래에서 수도했다.

지금 사람들은 강증산을 잘 모르지만 일제 자료에는 강증산의 가르침을 따르는 보천교가 신도 600만 명으로 최대 종단이었다고 말하고 있다. 강증산은 여섯 살 때 아버지가 황준재라는 훈장을 모셔서 공부를 시키자 하늘 '천(天) 자와 땅 '지(地) 자를 크게 읽고 밖으로 나갔다는 일화가 전해진다. 며칠 후 훈장이 공부하자고 하자 "하늘 '천' 자에 하늘의 이치를 알았고, 땅 '지' 자에 땅의 이치를 알았으면 되었지 더 배울 것이 어디 있습니까?"라고 반문했다고 한다.

강증산의 행적과 어록을 모은 경전들이 '도전(道典)과 '전경(典經) 등이

다. 이 경전들에는 우리 역사와 관련하여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나온다. 하나는 동학농민혁명의 실패를 예견했다는 것이다. 강증산은 "혁명이란 깊은 한(恨)을 안고 일어나는 역사의 대지진인 즉, 동방조선 민중의 만고의 원한이 불거져 터져 나온 동학혁명으로부터 천하의 대란이 동하게 된다"면서 동학농민혁명을 '후천 개벽을 알리는 큰 난'으로 해석했다. 그러나 전봉준이 찾아와 도와 달라고 하자 "때가 아니니 나서지 말라"면서 '성사도 안 되고 애매한 백성만 많이 죽을 것'이라고 예견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전봉준은 "그대가 안 된다면 나 혼자라도 하겠다"면서 봉기했다는 것이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를 예견한 듯한 말도 여러 번 나온다. 앞의 '도전'과 '전경' 등에는 세계적 전염병을 '병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병겁이 휩쓸면 자리를 맡아 치우는 줄조상을 치른다"는 표현이 나온다. 또한 "병겁이 돌 때는 세상의 모든 의술은 무용지물(無用之物)이 된다"라는 말도 나온다. 현재 코로나19 백신이 없는 현

실을 예견한 것처럼 읽힌다. 또한 "병겁이 들어올 때는 약방과 병원에 먼저 침입하여 전 인류가 진멸지경(盡滅之境)에 이르거늘 이때에 무엇으로 살아가기를 바라겠느냐"라는 예견도 있다.

그런데 강증산은 병겁이 '처음 발병하는 곳은 조선'이라고 예견했다. 조선에서 처음 시작하는 것은 이 병겁에서 인류를 살라는 '구원의 도(道)가 조선에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조선에서 대병겁이 시작한다는 예견은 중국에서 시작된 현실과 다르지만 이 병겁 때문에 '세상의 모든 의술이 무용지물'이 된다는 등의 말은 신동철 정도로 현실과 들어맞고 있다.

세계의 미래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로 크게 바뀔 가능성이 높다. 핵보다 더 무서운 것이 바이러스라는 사실이 여실히 드러난 것이나 이른바 선진국들이 신종 바이러스에 더 취약하다는 사실이 이를 말해 준다. 미국이라는 선진국이 자국민들을 보호하는 의료 시스템조차 없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도 충격적이다. 코로나19로 이른바 선진국 모델이 자연히 무너

진 것이다.

코로나19로 원격 수업이 실시되면서 기존의 교육 시스템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19세기 민족국가의 출현과 함께 등장한 현재의 교육 시스템은 그 효용성이 이미 다했음이 현재 우리가 처한 학교 현실이 말해 주고 있다. 다만 기존의 기록된 때문에 잘못된 현실을 끊지 못하는 관성으로 유지되고 있었는데, 이 또한 코로나19로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올 가능성이 커졌다.

강증산은 병겁에 대한 대책으로 '의동'을 제시했다. 현재 한국 의료진의 코로나19 대응책은 '의동'이라고 불려도 큰 이견은 없을 것이다. 문제는 의료 현장에서 보여 주고 있는 이런 '의동'이 다른 분야까지 확산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미국 콜게이트대학교의 마이클 존스톤 교수는 한국의 부패 유형을 '엘리트카르텔형 부패'라고 진단했다. 한국 사회 각 분야에 암처럼 자리 잡아서 코로나19처럼 퍼지고 있는 이런 카르텔을 해체시킬 수 있을지 여부가 그 해답이 될 것이다. (신한대 대학원 교수)

의료칼럼

봄의 관문 '꽃샘추위'



신준혁 수원청연한방병원 대표원장

봄에는 여러 종류의 꽃가루가 생성돼 대기 중에 떠다니기 때문에 콧물, 재채기, 코 막힘 등의 알레르기 비염 증상이 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여러 가지 알레르기 유발 물질들이 코 점막을 자극해 염증을 일으키는데, 최근에는 황사와 미세먼지가 알레르기 비염의 가장 큰 요인으로 꼽히고 있다.

황사와 미세먼지가 심한 날은 외출 시에 마스크 등을 착용해 알레르기 유발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초봄까지는 대기가 건조한 상태이기 때문에 피부 질환 환자도 많이 발생한다. 일반적인 실내 적정 습도는 40~50%이지만 꽃샘추위철의 실내 공기 습도는 10~20%에 불과하기 때문에 건조러움을 호소하는 피부 질환 환자가 늘어난다. 기존에 아토피나 건선 등의 피부 질환이 있는 환자들은 실내의 가습과 피부 보습에 신경을 써주는 것이 좋다.

한의학에서는 이런 꽃샘추위가 기승하는 시기에는 폐 건강을 유지하기를 권장한다. 폐는 코나 입을 통해서 들어온 공기에 섞여있는 물질들을 깨끗하게 걸러 내

서 우리 몸에 이로운 깨끗한 공기들은 전신에 산포시키고 더러운 물질은 다시 호흡기를 통해서 밖으로 배출을 시키는 것이다. 때문에 비염이나 천식, 감기 같은 증상에 우선 보호해 주고 강화시켜 줘야 할 장기는 폐이고, 이런 폐를 보호하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침으로 폐에 이로운 경혈을 자극하고, 폐에 좋은 약재들도 건강한 폐의 활동을 도울 수 있다.

이 시기는 알레르기 비염뿐 아니라 알레르기 피부염도 많은 계절이다. 수분 섭취를 자주하고 이 시기에 나는 두름, 붓동, 유채, 냉이 등 봄나물을 많이 먹어서 신선한 비타민들을 섭취하는 것이 좋다.

먼저 두름은 봄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시기에 먹으면 가장 좋은 음식이다. 두름은 단백질이 매우 풍부하고 철분과 비타민, 섬유질 등을 함유하고 있어 '산나물의 제왕'으로 불리기도 하는데, 항암 효과가 있고 고혈압과 동맥 경화증을 개선하며, 겨우내 묵었던 피로 회복과 혈액 순환에 도움이 된다.

겨울과 봄에 수확하는 봄동은 베타카로틴, 칼륨, 칼슘, 인 등이 풍부해 빈혈 예방

에 탁월하며 동맥 경화에도 도움을 준다. 봄동은 비타민 A와 무기질이 풍부한 대신 단백질과 지방이 부족하기 때문에 돼지고기 요리와 함께 먹으면 더욱 좋다.

유채는 1월께 겨울의 추위를 뚫고 여민 잎을 올리는 식물이다. 한의학에서는 이러한 유채의 기운을 '정질이 따뜻하고 맛이 매우며 독이 없다'고 설명하고 있다. 유채는 섬유질이 풍부해 위장의 활성화를 돕고, 비타민 A와 C가 풍부해서 피로를 덜어주고 혈액 순환을 잘되게 하는 효능이 있다.

냉이는 제철 봄나물의 대표 주자이다. 냉이의 독특한 향은 소화액을 분비시켜 소화를 촉진하고 입맛을 돋운다. 또한 비타민 A, 비타민 C 등이 풍부하여 나쁜한 봄철 피로 회복에 도움이 된다. 더불어 냉이는 다양한 조리 방법에서도 영양소의 소실이 거의 없어 유용하다.

이처럼 꽃샘추위가 오는 시기에는 외출 후에 들어와서는 반드시 손발과 외부에 노출된 피부를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 감기, 비염 등 질환이 심한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을 찾아 정확한 진단과 치료를 받아야 한다.

기고

광주형 플랫폼 사업으로 미래 먹거리 창출하자



정기우 전남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해당한다. 최근 매출 규모는 삼성전자 60조 원, 구글 136조 원, 애플 112조 원, 페이스북 68조 원 안팎으로 매우 크다.

투자 수익률(ROI)도 현저히 높다. 예컨대 구글은 삼성전자 대비 고용 인원이 3분의 1도 되지 않아 플랫폼 기업의 특징인 낮은 인건비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 전형적인 플랫폼 사업 모델로서 동일한 콘텐츠(영화)를 약정 이용료를 내고 다온반야 보게 하는 넷플릭스 같은 사업은 황금알을 낳는 꿈의 사업인 것이다. 플랫폼 사업이 성공하려면 콘텐츠를 계속해서 사용하게 하는 킬러 콘텐츠(killer contents) 보유가 필수적이다. 게임이나 e-스포츠가 좋은 예이다.

광주형 플랫폼 기업의 성공적인 발굴 및 육성은 민선 7기 이용섭 시장의 핵심 사업인 광주형 일자리 사업 추진의 부속한 재원도 창출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고용 창출 및 상권 활성화라는 보너스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시 산하기관인 광주정보산업진흥원의 콘텐츠 제작 역량, 광주과기원의 인공 지능 빅데이터 사업, 전남대의 플랫폼 기획 역량이 상호 유기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

정부도 유망 온라인 플랫폼 사업을 발굴하여 글로벌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하고 있고,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광주에서 압승을 거두면서 정치적 환경이

유리해 국책 사업 추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광주형 플랫폼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타 지자체 및 기업들이 아직 관심을 보이지 않았고, 원가-자본에서 절대 경쟁 우위를 지녀 투자 수익률이 매우 높아야 한다. 또한 국내외 이용자들의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킬러 콘텐츠화가 가능한 분야여야 한다. 이 같은 전제 아래 다음과 같은 사업의 검토를 제안한다.

첫 번째 제안 사업은 탄광도시 태백시를 활성화 시킨 강원랜드의 플랫폼 사업으로서 'G-랜드 사업'이다. 강원랜드는 연 매출이 5조 원에 달하는 사업이다. G-랜드 사업은 코로나로 카지노 출입이 막힌 내외국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온라인 카지노 사업이며, 아직 경쟁업체나 지자체가 없다는 특징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도 사행성 또는 중독성 있는 사업 추진이 5·18 민주도시인 우리 광주에 적합하지는 전문가 및 시민들로부터 먼저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세계인이 열광하는 F1 자동차 경주 대회(특징이 있다. 하지만, 아무리 수익성이 높은 사업이라도 사행성 또는 중독성 있는 사업 추진이 5·18 민주도시인 우리 광주에 적합하지는 전문가 및 시민들로부터 먼저 평가하여야 할 것이다. (www.formular1.com)를 온라인 상에서 개최하는 '광주 F1 자동차 경주 사업'(Formular One의 플랫폼 사업)이다. 오프라인 상에서 수천억의 국비를 투입하고도 실패한 영암 F

1 경기 사업의 명예를 온라인상에서 회복하고, 가상 현실(VR) 및 증강 현실(AR) 같은 4차 산업의 현란한 기술을 바탕으로 관람자가 실제 경기에 참여하거나, 무료 로보 경주자가 경주를 할 수 있는 참여형 사업 제안이다. G-랜드 사업 같은 사행성은 없으나, 중독성이 있는 사업이라 긍정적인 평가 결과가 기대된다. 또한 이 사업은 오프라인 사업과 비교해 구축·관리나 운영비가 훨씬 저렴하고, AR과 VR 등 관련 콘텐츠 산업 및 광주 인공 지능 집적화 단지 활성화라는 부수 효과도 기대되는 사업이다.

세 번째는 아시아 문화전당과 비엔날레 등의 세계적인 예술 콘텐츠를 기반으로 내외국민에게 서비스하는 광주형 문화 포털(www.gwangjuC.com) 사업이다. 이는 사행성이나 중독성 없이 문화, 예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이다. 광주형 문화 포털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는 고객의 관심과 호기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양한 마케팅이 필수적이다.

이처럼 명분과 실리, 그리고 잠재성은 4차 산업 기술 기반의 광주형 플랫폼 사업들을 적극 발굴하고 육성하여 코로나 19 위기(危機)를 광주의 미래 먹거리를 발굴하는 절호의 기회(機會)로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社說

문화전당 정상화 지역 정치권 힘 모아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하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발의된 지 9개월이 다 돼 가지만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폐기될 위기에 처했다. 정부의 국립 아시아문화전당 관리·운영 기간을 5년 더 연장하는 이 법안이 20대 국회 임기 종료로 무효가 되면 문화전당의 정상화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올해로 개관 5년째를 맞은 문화전당의 국가 운영 기간은 특별법에 따라 당초 지난 4월 13일까지였다. 정부는 이후 성과 평가를 거쳐 현재 아시아문화원에 일부 위탁하고 있는 방식을 전부 위탁으로 변경할지 결정해야 했다. 이처럼 국가의 운영 종료 시한이 임박하자 최경환(광주 북구) 의원은 지난해 8월 문화전당 일부 위탁 규정의 유효 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하지만 개정안은 20대 국회 임기 종료일이 한 달도 채 남지 않은 현재까지 소관 상임위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상정조차 되지 않아 사실상 통과가 어려운 상황

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지난 3월 특별법 시행령 개정으로 문화전당 위탁 여부에 대한 성과 평가를 올해 연말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다.

이로 인해 문화전당의 관리·운영은 문화체육관광부가 맡고, 콘텐츠의 창작과 제작을 비롯한 수익 창출 등은 아시아문화원이 위탁받아 수행하는 이원화 체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게 됐다. 수년째 전당장 직무대행 체제가 이어지고 있는 것도 비정상적이다.

참여정부 시절 국책 사업으로 시작된 문화중심도시 조성 사업은 이명박·박근혜 정부를 거치면서 왜곡·축소돼 지지부진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대체식과 식사 배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또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와 함께 대체식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가ם 아무도 모르는 사이 세상을 떠나고 수개월 후 주검이 발견됐다는 독거노인의 뉴스가 보도되곤 한다. 이는 과거와 달리 이웃과 단절된 현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황금연휴와 '가정의 달'에 더욱 홀로 사는 노인들과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없으니 더욱 외롭고 힘겨운 시간

코로나 여파 독거노인들 소외되지 않도록

요즘 혼자 사는 노인들은 대부분의 시간을 집안에서 보낼 수밖에 없다. 코로나19 확산을 우려해 노인복지시설과 경로당 등이 폐쇄됐기 때문이다. 광주의 경우 노인복지관 9곳과 경로당 1329곳이 문을 닫았다. 전남도 역시 노인복지관 28곳과 경로당 912곳이 운영을 멈춘 상태다.

자연히 독거노인들은 집에서 하루 종일 TV와 벗하며 무료한 시간을 보낼 수밖에 없다. 외출을 하려 해도 갈 곳이 없다. 가끔 아파트 단지 내에서 봄꽃을 보거나 햇볕을 쬐는 정도가 유일한 바깥나들이다.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을 시작으로 5월 5일 어린이날까지 황금연휴가 이어진다. 5월은 어린이날과 어버이날(8일) 및 부부의날(21일)까지 들어 있는 '가정의 달'이기도 하다. 하지만 취약 계층과 독거노인들에게는 1주일 가까운 연휴에도 갈 데가 없으니 더욱 외롭고 힘겨운 시간

일 뿐이다.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광주의 독거노인과 장애인인 1만 1455명이며 전남의 독거노인은 10만 4860명이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연휴 기간 동안 독거노인 등을 대상으로 돌봄 지원책과 결식 대책을 마련했다. 광주시는 연휴 기간 동안 식사를 할 수 없는 대상자들에게 대체식과 식사 배당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전남도 또한 독거노인 응급 안전 서비스와 함께 대체식 등을 전달할 방침이다.

가ם 아무도 모르는 사이 세상을 떠나고 수개월 후 주검이 발견됐다는 독거노인의 뉴스가 보도되곤 한다. 이는 과거와 달리 이웃과 단절된 현 한국 사회의 단면을 보여 준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우리 주위의 이웃들이 소외되지 않아야 한다. 황금연휴와 '가정의 달'에 더욱 홀로 사는 노인들과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갖는 게 없으니 더욱 외롭고 힘겨운 시간

無等鼓

요즘 시내를 걷다 보면 여기저기 아파트와 주상복합건물이 눈에 들어온다. 이 엄청난 양의 공동주택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광주시의 도시·건축·재생·경관 관련 계획들은 왜 아무런 기능을 못하는가. 도시의 아름다움이나 조화는 아예 포기한 것인가. 물음과 의문이 꼬리를 문다.

아파트의 편리성·효율성 등은 인정한다. 하지만 그것이 이 멋있고, 투박하며, 이기적인 건축물로만 광주라는 도시 공간을 획일적으로 채워야 하는 이유가 될 수는 없다. 어쩌다 이렇게 '아파트 열풍'을 제어할 수 없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될까. 아마도 아

파트 개발에 최적화된 법령과 중앙정부의 지침, 부동산 재테크의 대유행, 시민으로부터 도시 공간의 개발 권한을 위임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방기 등이 뒤섞인 결과일 것이다.

신(神)과 건물주의 합성어인 '갓물주'라는 말이 있다. 별다른 노력 없이 임대료를 매달 받을 수 있는 건물주를 뜻하는 신조어다. 일해서 얻은 것보다 불로소득이 더 크니 건물주를 탐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건물주를 누구나 선포하다보니 생

겨난 말이다. 아파트 역시 분양을 받기만 하면 모도 복권과 다름없는 이익을 안겨 주니, 남녀노소 모두 분양권 당점을 바라며 불·탈법까지도 불사하고 있다. 아파트를 수십 채씩 보유한 채 웃돈(프리미엄)을 챙겨도 아무런 제재나 제약이 없다.

19세기 말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1879)이라는 저서에서 토지에 의한 불로소득에 대해 철저하게 세금으로 징수할 것을 강조했다. 그는 "돈을 투자하는 자본가는 사업 아이디어를 내고 기업을 경영하며, 노동자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토지 소유주는 하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했다. '토지 공개념'의 필요성을 역설한 것이다. 토지는 정부·지자체 등 공공의 개발 및 계획에 의해 그 가치가 상승한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21세기 대한민국 광주에서 아파트 등 부동산 투기는 정상의 범위를 완전히 벗어났다. 마치 투기가 번성하고 당연히 해야 할 것처럼 잘못 인식되고 있다. 도시가 온통 투기장으로 변질됐는데 어찌 근면성실을 강조할 수 있을까. /유현석 정치부 부장 chadol@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시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刊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주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국내(국통 신청 배달 안배)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3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4	(FAX 222-0195)	(FAX 222-0195)
사회부 220-0652	체육부 220-0621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전남본부 220-0642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